

넷플릭스 대항마 될까... 애플TV+ 이어 디즈니+ 국내 상륙

외산 OTT 각축전

‘애플TV플러스’, 11월 구독 6500원 TV 전용 셋톱박스 ‘4K’도 선보

디즈니플러스, 연간 9만9900원에 1만6000회차 이상 영화·TV 감상

애플TV플러스가 4일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12일에는 디즈니플러스가 출시돼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 기업들이 넷플릭스가 독주하고 있는 시장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로써 외산 OTT 시장 경쟁은 삼파전에 접어들었다. 이들 업체의 시장 진입으로 국내서 넷플릭스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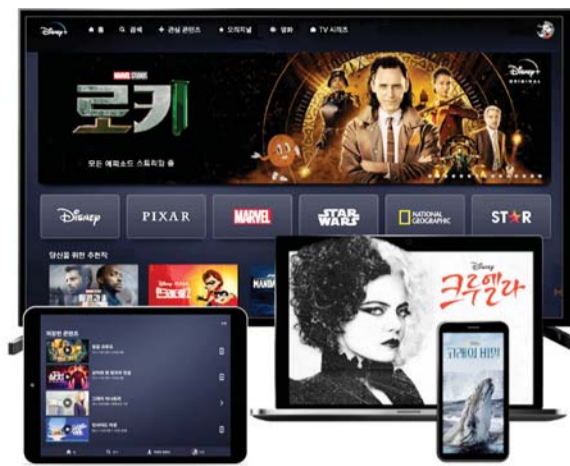
HBO맥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도 국내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OTT 업체들의 도전에 직면한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과 같은 K-콘텐츠를 잇따라 선보여 세계인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애플은 4일 OTT 서비스인 ‘애플TV플러스’와 전용 셋톱박스 ‘애플TV 4K’를 선보였다.

애플TV플러스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 애플 제품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일부 스마트TV, 플레이스테이션 콘솔로 월 6500원에 구독할 수 있고, 가족 6명까지 계정을 공유할 수 있다. 애플을 지원하지 않는 TV는 23만7000원의 전



애플TV플러스에서 상영되는 영화들. /애플



디즈니플러스 한국 서비스 UI. /디즈니코리아

용 셋톱박스인 애플TV 4K를 구매해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애플TV 4K는 A12 바이오닉을 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탑재하고 초당 60프레임 재생, HDR, 돌비비전, 돌비에트모스 등 고품질 영상·음향 기능을 지원한다. 이 제품은 특히 디즈니플러스, 웨이브, 왓챠 등 경쟁 OTT도 실행할 수 있다.

애플TV 4K에는 애플의 음성 인공지능(AI) 비서 ‘시리’도 탑재됐다. 리모컨으로 음성 명령을 내리면 시리가 앱 기능을 실행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추천해줘’, ‘배우 신하균이 나오는 영화를 추천해줘’와 같은 명령을 내리면 해당 조건에 맞는 콘텐츠를 검색해 준다.

애플은 이번 서비스 출시에 맞춰, 이선균 주연의 애플TV플러스 최초의 한국 콘텐츠인 ‘닥터 브레인’을 상영했

다. 또 앞으로 한국 콘텐츠 투자를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애플과 독점 계약을 체결한 SK브로드밴드는 Btv 이용자에게 애플TV+ 6개월 체험 기회를 제공해 고객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가입자수를 따져보면 애플TV플러스의 북미 가입자수는 7월 기준으로 2000만명도 채 안 돼 2억명이 넘는 구독자를 확보한 넷플릭스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또 세계 시장에서 디즈니플러스의 가입자수도 1억1600만명에 이른다.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는 디즈니플러스(디즈니+)를 12일 정식 출시, ‘디즈니(Disney)’, ‘픽사(Pixar)’, ‘마블(Marvel)’, ‘스타워즈(Star Wars)’, ‘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 ‘스타(Star)’ 등 핵심 브랜드들의 영화 및 TV 프로그램 콘텐츠를 제공하고

와 ‘블랙핑크: 더 무비’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디즈니코리아는 또 협업에도 적극 나서 LG유플러스와 IPTV 및 모바일 제휴를 진행했고, KT와는 모바일 제휴를 진행한 바 있다.

월트디즈니컴퍼니는 지난 10월 진행된 APAC 콘텐츠 쇼케이스에서 20개 이상 아태지역 신규 콘텐츠를 공개했고, 7편의 한국 콘텐츠 라인업을 발표했는데, 2023년까지 아태지역에서 50개 이상 오리지널 라인업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장 1위인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등 한국 콘텐츠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바 있는데, 더 많은 한국 콘텐츠를 전 세계에 선보일 계획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다양한 OTT 서비스의 등장으로 시청자들이 취향에 알맞은 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경쟁력은 ‘콘텐츠’로 훌륭한 이야기는 국가와 언어, 문화의 장벽을 넘어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국내 창작 생태계와 협업을 이어가며 올해에만 ‘오징어게임’, ‘D.P.’, ‘킹덤: 아신전’, ‘마이 네임’, ‘백스피드’ 등 한국 콘텐츠를 공개한 바 있다. 또 향후 ‘지옥’, ‘떡볶이떡볶이’, ‘고요의 바다’, ‘블랙의 신부’, ‘지금 우리 학교는’, ‘썸바디’, ‘모럴센스’, ‘카터’, ‘서울대작전’, ‘정미’ 등을 선보여 점유율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현대차, SW·AI 분야 핵심연구 성과 공유

2021 HMG 개발자 콘퍼런스 성료
로보틱스 등 53개 주제, 기술 공유

현대자동차그룹이 ‘2021 HMG 개발자 콘퍼런스(HMG Developer Conference)’를 성황리에 마쳤다.

1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분야까지 확장된 모빌리티 기업으로서의 다양한 연구성과를 개발자들과 공유하고 소프트웨어 분야 등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마련한 ‘2021 HMG 개발자 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종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의 여정(Journey for Smart Mobility Solution)’을 주제로 이달 10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콘퍼런스에



현대차그룹 ‘2021 HMG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실시간 질의응답 중인 개발자.

총 6500여명이 관람을 등록했다.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오트모터와 현대차그룹과 협력하고 있는 우수스타트업 5개 팀(MOBINN, 메쉬코리아, 슈퍼무브, 모빌테크, 메이아이)에서 사전심사를 통해 선발된 총 70

명에 이르는 개발자들의 기술 발표를 경청했다.

이번 콘퍼런스 발표 세션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친환경차 ▲로보틱스 ▲인포테인먼트 ▲모빌리티 서비스 ▲버추얼 개발 ▲스마트팩토리 ▲미래 모빌리티 등에 걸친 총 53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외부 연사 발표 세션에서는 AI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자 현대차그룹 자문 교수인 MIT 컴퓨터공학·인공지능연구소(MIT CSAIL) 소장 다니엘라 러스(Daniela Rus) 교수와 현대차그룹과 AI 관련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전기·컴퓨터공학과 송한(Song Han) 교수가 최신 기술 동향과 연구 프로젝트 등을 공유했다. /양성운 기자 ysw@

美타임지, LG올레드TV ‘올 최고 발명품’

엔터테인먼트 부문 3년 연속 선정

미국 타임지도 LG 올레드 TV 혁신성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

LG전자는 타임지가 올레드 TV를 3년 연속으로 ‘올해 최고 발명품’에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타임지는 2019년 LG 시그니처 올레드 8K와 2020년 LG올레드 갤러리 TV를 엔터테인먼트 부문 최고 발명품에 선정할 바 있다.

올해에도 최고 발명품 100개 중 유일한 TV 제품으로 LG 올레드 TV를 꼽았다. TV 제품이 3년 연속 선정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타임지는 LG 올레드 TV(모델명: C1)가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일반 LCD TV와는 달리 화소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 어두운 장면에서도 훌륭한 색상



LG 올레드 TV /LG전자

과 선명한 이미지는 물론, 압도적인 명암비를 구현하는 ‘최고 TV(Award-Winning Television)’라며 극찬했다.

타임은 “최고 중의 최고를 경험하고 싶다면 한 시간만 LG 올레드 TV 앞에 앉아 보라”며 차세대 콘솔기기에 최적화된 최고 수준의 게이밍 성능을 갖춘 올해의 베스트셀러 프리미엄 TV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현대글로벌비스, 국내 물류社 최초 ‘DJSI 월드 지수’ 편입

미래 선도 지속가능경영 경쟁력 인정

현대글로벌비스가 ‘2021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이하 DJSI)’ 평가에서 국내 물류기업 최초로 DJSI 월드 지수에 편입됐다. 전세계 물류·해운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회사 중 하나로 선정되며, 글로벌 최상위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경쟁력을 인정받은 셈이다.

현대글로벌비스는 국내 물류기업 최초로 올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 지수’(DJSI World)에 새롭게 편입됐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DJSI 월드 지수에 진입한 국내 기업은 21개로 이 가운데 글로벌 운수 및 교통 인프라 부문에서는 현대글로벌비스가 유일하다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

현대글로벌비스가 이번에 편입된 DJSI

I 월드 지수는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상위 2500개 기업 중 약 10%가 선정된다. DJSI 월드 지수에 편입됐다는 것은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지속가능경영의 선구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월드 지수뿐 아니라 7년 연속으로 DJSI 아시아퍼시픽 지수와 DJSI 코리아 지수에도 이름을 올렸다. /양성운 기자

제주항공, 부산~사이판 노선 운항 재개

내달 1일부터 매주 수요일 출발

제주항공이 부산발 국제선 운항을 확대 운영한다.

제주항공은 12월 1일부터 부산~사이판 노선에서 주 1회 운항을 재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탓에 지난해 3월 21일 정기편 운항을 마지막으

로 이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 이후 1년9개월여 만이다.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해 사이판에 오후 1시(현지시간)에 도착하고, 사이판에서는 오후 2시에 출발해 김해국제공항에 오후 5시 35분 도착하는 일정이다.

/양성운 기자